

# 청년 삶·결혼·육아 긍정분위기 조성 집중

## 생생마을플러스 사업 전문가 현장 컨설팅

### 전북도, 6월 11일까지 '청년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인구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개최

전북도가 청년의 삶·결혼·육아에 대한 긍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년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인구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청년이 살기 좋은 전북,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임신·육아 배려문화 확산 등 3개 주제이며, 공모 부문은 UCC 영상과 웹툰&포스터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육아·저출산에 집중된 인구 공모전과 달리 청년의 삶과 결혼·육아에 대한 긍정분위기 조성에 집중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월 11일까지이며, 전북에서 청년의 삶·결혼·육아에 대한 긍정분위기 조성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민은 공모 신청서 및 출품작 설명서를 공모 담당자 전자우편(bono8734@korea.kr)로 제출하면 접수되며, 자체 내부심사와 본심사

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

시상금은 총 900만원이며, 시상 인원은 총 16명으로 수상자에 시상금과 함께 도시상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서식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 공모게시판(<http://www.jonbuk.go.kr>) 및 '전북소통대로' 공모제안 메뉴(<https://policy.jb.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공모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도 SNS 홍보채널, 민

간 공모전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한편, 청년층 참여를 위해 도내 대학교와 청년관련 단체에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 극복은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개선도 중요하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청년에게 살기좋은 전북과 결혼·육아에 대한 긍정분위기를 전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마을 대상 사업 현장 문제점·개선방안 도출 위해 추진

전북도가 도농 융합상생 프로젝트인 생생마을플러스 사업 추진과 함께, 찾아가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주민 주도의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촌의 패적함과 다원적 기능 중심의 사업을 발굴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꾀한다.

이에 전북도는 생생마을플러스 사업 주체인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2일 익산 송정마을, 완주 신상마을, 완주 위봉산성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추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유호상기자

또한, 5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컨설팅을 이어가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더불어 사는 도시와 농촌 구현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해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할 5개 사업으로 ▲마을평생교육(7개소), ▲마을기술사업단(2개소), ▲도농상생 힐링프로그램(3개소), ▲농촌소셜다이닝(5개소), ▲문화예술인 생생마을살아보기 사업(2개소)으로 구성됐고, 내년에는 치유힐링 프로젝트, 캠프농장 등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해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기자

## 새만금개발청, SK E&S와 새만금 그린뉴딜 시동

### 창업클러스터·데이터센터 구축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난 16일 SK E&S(대표이사 추형욱)와 새만금에 창업클러스터(협력지구)와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RE100, 그린수소 등 한국형 뉴딜의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과 추형욱 SK E&S 대표는 창업클러스터(협력지구)를 통해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랜드마크(상징물) 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획사를 활용한 마케팅과 관광 브랜드화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국내 ESG경영을 대표하는 SK의 경영 노하우(비법)를 새만금에 확산하고, RE100과 그린수소 등 미래 신에너지 사업의 제도개선 방안과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추형욱 SK E&S 대표는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최적지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개발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 뉴딜의 사업영역을 확대, 새만금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ESG경영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SK가 추진할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벤처 육성이 결합돼 상생하는 한국형 뉴딜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고 밝히면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 당부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유호상기자



4.19 민주묘지 참배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 기념탑에서 묵념하고 있다.

## 전북도, 가정의 달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25곳 일제 위생 점검

전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14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며, 도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125곳을 점검한

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질병의 예방·치료를 효능이 있는 부당표시·광고 여부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유호상기자

이번 점검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창환 도 건강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 종교시설 방역실태 집중 점검

### 전북도, 정부·시·군 합동으로 방역점검단 구성 실시

전북도는 기도원 등 방역취약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방지하고자 이들 시설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최근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도는 정부, 시·군과 합동으로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도내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종교시설 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안부·문체부·도·경찰청·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7개 팀이 도내 14개 시·군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지난 12일부터 도내 기도원, 수련원 등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기도원·수련원 등 약 114개소를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3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사항은 종교시설 내 흡수, 각종 모임·행사, 시설 내 음식물 섭취 여부 등이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에서 하루 20명 인파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종교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며 "종교시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본격 추진

노인 자립기반 조성 및 인식개선, 노인인권 향상 등을 위한 '2021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는 올해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대상이 지난 3월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돼,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의 '경로당 미술공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8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19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등 8개 단체에서 추진하며,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적은 취약 경로당 등을 선정해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등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이 진행된다. 사업내용은 ▲인지능력 복원을 위한 요가 및 공예체험, ▲치매예방 체조교실, ▲우울감 완화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예체험, ▲친환경 식물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원예프로그램 등이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공예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